



5면

'왕의 공원 프로젝트' 실현 국비 지원 요청

# 전주매일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음 2월 27일) 제34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전북 금융산업 발전 공감대 형성

김관영 도지사, '세계 1위 글로벌 수탁은행' BNY Mellon 한국 본사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지속 강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세계 1위 글로벌 수탁은행인 BNY Mellon의 하니 카블라위(Hani Kablawi) 국제 부문 대표와 광광 첸(Fangfang Chen)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면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NY Mellon은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전주사무소를, 지난해 8월에는 자회사인 BNY Mellon 자산 운용그룹 전주사무소를 각각 개소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BNY Mellon 창립 240주년 축하인사를 건네며,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BNY Mellon이 그동안 전북 지역 인재채용,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4일 서울국제금융센터 BNY Mellon 한국본사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하니 카블라위 BNY Mellon 국제 부문 대표(사진 오른쪽)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꾸준히 협력하여 전북 지역의 금융 서비스 산업 및 지역 사회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공헌하겠다"고 화답했다.

BNY Mellon은 세계 투자 가능 자산의 약 20%에 관여하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용·보호하는 데 있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세계 자본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BNY Mellon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약 47조8,000억 달러의 수탁고 및 자산을 관리하고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고창군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허브단지 조성사업 분양계약식'에서 심덕섭 군수(사진 오른쪽)와 삼성전자 김동욱 부사장(사진 왼쪽)이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삼성전자, 고창 신활력산단 입주 확정... 물류센터 건립

고창군과 '스마트허브단지 조성' 분양계약 체결  
총 3000억 내외 투자, 500여명 직·간접 고용 창출  
AI·로봇·자동화 시스템 등 도입 검토 계획

고창군이 삼성전자(주)와 '스마트허브단지(삼성전자 호남권 물류거점 가칭) 조성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전남(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삼성전자(주) 김동욱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허브단지 조성사업 분양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초일류기업이다. 이번 분양계약으로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호남권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주)는 고창신활력산단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입해 자동차와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센터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내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관련 기업 및 인력의 우선 활용·채용도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총 3,0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발빠르게 고창신활력산단단지계획 변경

협에 착수해 올해 3월 유치업종 변경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됐다.

삼성전자는 고창에 자동차와 물류센터 구축사업으로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 물류의 기능은 조달, 배송 등 단순 기능에서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이라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바뀌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소터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삼성전자와 고창군의 대규모 분양계약 체결은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산업구조의 관을 바꿀 일대 사건이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4월 5~6일 총선 사전투표'

도내 243곳...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도내 2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

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의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 등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 2024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 교통통제

4월 14일(일) 06:30~13:00

구간	통제시간	해제시간	비고
⑤ 월명종합경기장 ~ ⑨ 동초사거리	06:30 ~ 13:00		전면통제
① 사정삼거리 ~ ② 남북로사거리	07:15 ~ 10:00		교통통제 후 순차적 해지
② 남북로사거리 ~ ③ 진포초사거리	07:20 ~ 09:30		교통통제 후 순차적 해지
③ 진포초사거리 ~ ④ 월명오거리	07:30 ~ 09:00		교통통제 후 순차적 해지
④ 월명오거리 ~ ⑤ 내항사거리	07:30 ~ 09:30		부분통제
⑤ 내항사거리 ~ ⑥ 금강해수원드 앞교차로	07:35 ~ 10:00		전면통제
⑥ 금강해수원드 ~ ⑦ 연안사거리	07:35 ~ 13:00		전면통제
⑦ 연안사거리 ~ ⑧ 동초교사거리	09:00 ~ 13:00		부분통제

— 마라톤 코스  
--- 우회도로 및 통행 가능 구간별 포인트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로 4월 14일(일)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차량 운행 시 통제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우회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454-3298-9

